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에서 근대적지향이 비낀 새로운 성격형상

박사 부교수 **강복실**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력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하여야 지난 기간에 제기되었거나 오늘 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옳바로 밝혀내고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으며 그것이 지금은 물론 먼 앞날에 가서도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할수 있습니다.》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은 우리 나라 고전소설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자본주의사회에 넘어가는 과도적단계의 소설로서 이 시기의 한문단편소설에 근대적경향이 다분히 나타나있기때문이다.

이 시기 한문단편소설은 봉건량반들의 계급적몰락의 추세와 서민부자들의 대두, 신분제도의 급격한 와해과정, 국내상품류통과 대외무역의 활발한 움직임, 사람들속에서 나타나는 상업의식의 증대와 물질적부, 금전에 대한 욕구 등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던 18~19세기의 시대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그속에서 점차 변화되어가는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다양하면서도 특색있게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고전문학의 근대적요소 특히 근대적지향을 체현한 인물성격형상에 대해서는 주로 량반계급의 몰락상을 풍자한 《량반전》(박지원), 《배비장전》과 《리춘풍전》, 근대적인 애정관념과 개성해방의 지향을 보여준 《채봉감별곡》과 같은 중편소설들을 근거로 하여 많이 논의하였다.

실례로 《조선문학사》(6)(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체88(1999).), 《조선고전소설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조선고대중세문학》(2)(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6(2007).), 《조선중세단편소설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2(2003).), 《조선중세중편소설과 그 사상예술적특성》(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5(2006).) 등 국내의 고전문학사관계도서들을 들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도 《박지원소설의 근대적요소에 대하여》(중국료녕민족출판사, 1987.), 《조선고소설사고》(상)(중국연변대학출판사, 1998.), 《조선고전문학사고》(수정판)(중국민족출판사, 2006.) 등 도서들과 학위논문들에서 이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도서 《박지원소설의 근대적요소에 대하여》에서는 1980년대 후반기까지 중국의 조선고전문학연구자들속에서 뚜렷이 제기되지 못하였던 박지원의 소설에서 나타난 근대적요소를 주제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식, 풍자적특성의 측면에서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이 도서에서는 박지원의 소설에서 나타난 근대적요소와 그 과도적성격, 봉건말기 소설에서의 교량자적 지위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었다. 그러면서 《18세기 조선의 문호 박지원의 단편소설들은 비록 중세기적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강렬한 근대적예술의 섬광이 번

찍이고있다.》고 서술하였다.

《조선고소설사고》(상)에서는 조선봉건왕조후기 소설들에서 주목되는 인물성격창조에서의 변화에 대하여 영웅화경향을 반대한것이라고 하면서 빌어먹는 사람, 기녀, 파산몰락한 귀족, 타락한 관료, 거름내는 사나이, 방탕한 여자, 강도 등 보통사람, 소인이 소설속의 주요 주인공으로 되고 량반선비, 관료 등 상류사회의 상층인물은 오히려 풍자의 대상이 되거나 수치, 조소를 당하는 인물이 되었다고 밝히었다. 그러면서 《영웅화경향을 반대하는중에서도 박지원의 소설은 가장 명백하게 표현하였다. 신랄한 풍자와 예리한 조롱은 박지원의 소설의 가장 특출한 사상예술적특색이다. 그리고 풍자, 조롱당하는 대상은 신통히도 이전의 영웅, 량반귀족계급이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은 봉건말기 우리 나라 고전소설의 인물관계설정과 성격창조에서의 특성, 근대지향적인 새로운 성격창조가 실학파작가인 박지원의 역할, 선진적인 시대사조인 실학사상의 영향에 기인되는것임을 시사해주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 나라 고전소설에 나타난 근대지향적요소를 거의나 박지원을 비롯한 이름있는 작가들의 소설이나 《배비장전》, 《리춘풍전》과 같은 중편소설들에 국한시켜 분석하였으며 특히 량반의 부패타락상, 량반의 위세가 더는 통하지 않고 그들의 특권적지위가 급속히 와해되어가던 신분제도의 해이상, 인간의 자유와 개성해방의 지향 등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시기 발굴번역된 《청구야담》, 《동야회집》(리원명), 《계서야담》(리희준), 《동패락송》(리희준), 《차산필담》 등 18세기말~19세기에 창작된 패설집들에는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민감하게 반영한 일련의 작품들이 실려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주제사상적내용에 있어서나 근대적지향이 비껴 다양하면서도 특색있는 성격탐구에 봉건말기 우리 문학에 나타난 근대적요소를 종전과는 달리 새롭게 부각시켜볼수 있게 하고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이 시기 패설집들에 올라있는 작품들가운데서 줄거리조직이나 묘사에서 소설적체모를 갖춘 일부 작품들을 단편소설로 취급하였다.

론문에서는 지난 시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근대적지향을 체현한 성격형상을 자기 시대를 다 산 몰락한 량반계급의 풍자적형상과 개성해방의 지향을 지니고 능동적으로 자유와 사랑을 성취하던 진취적인 성격형상의 측면에서만 보던 일면성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던 시대의 변천상을 체현한 성격형상의 견지에서 폭을 넓혀 새롭게 논의하려고 한다.

2. 본 론

인민들의 미학적요구, 정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새로운 경제관계,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던 18~19세기에 와서 사람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이 시기 소설에서는 변천되어가는 사회경제생활에 따라 산생된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시기 소설들에서는 새로운 시대사조인 실학사상과 자본주의적관계를 보여주면서 지난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국내상업활동이나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농촌에서 자기의 로동으로 농사를 지어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량반 혹

은 서민출신부호들의 형상,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각이한 계층의 인간들의 형상 등 새로운 인물형상들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 소설의 성격형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의 성격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먼저 몰락량반의 처지에서 상업과 농업분야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장사나 상업적농업을 경영하여 거대한 재부를 축적하는 량반들의 형상이다.

그가운데서도 주목할만 한것은 상업적농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재부를 축적하는 량반출신대부호들의 형상이다.

단편소설 《물산을 잘 다스려 화목해진 선비》와 《귀향》은 자기 경리를 재빨리 시장수요에 적응시켜 상업적농업을 경영함으로써 거대한 화폐재부를 축적하여 대부호로 되는 량반선비들의 형상을 창조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동야취집》(리원명, 1869)의 단편소설 《물산을 잘 다스려 화목해진 선비》는 주인공 허공이 여러가지 장사와 농업을 적극 경영하여 부호가 된 내용을 담고있다.

려주의 어질고 착하면서도 몹시 가난한 량반인 허생은 집에 세 아들을 두고 글공부를 시키면서 친지들에게 두루 구걸하여 아들들의 입에 풀칠을 하였는데 그의 어진 성품으로 하여 모두가 동정하여 도와주었다.

허씨내외가 죽자 더는 생계를 유지할수 없게 된 아들 삼형제내외는 각기 살아갈 방도를 찾자고 하며 눈물을 뿌리며 분가한다.

둘째 아들인 주인공 허공은 즉시 안해가 가지고있던 물건들을 팔아서 6~7푼미의 돈을 마련하였다. 때마침 목화가 풍년이여서 그 돈으로 목화 수백근을 사들이고 그것을 다시 팔아 귀밀 100여섬을 사들이었다. 1년동안 길쌈을 하여 마련한 수백냥의 돈으로 10마지기의 땅을 사들이고 자신이 직접 담배농사를 지었다. 가물철에도 애지중지 담배모를 자래웠더니 도처에서 담배모들이 전부 말라죽었으나 허공의 담배모판만은 유독 무성하였다. 그는 담배밭을 통채로 돈 200푼미에 팔고 담배순까지 100냥에 팔아서 10마지기의 소출이 곡식 100섬에 이르렀다. 이렇게 재산이 다달이 불어나고 매해 늘어나서 5~6년만에 일떠섰고 10년만에 만석군이 되었으며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았다고 한다.

리희준(1775~?)의 《계서야담》(1833)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귀향》의 주인공 최생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은 벼슬길이 막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빈궁한 생활을 하던 주인공 최생이 고답적인 선비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고향인 충청도 청주에 내려가 10년동안 농사도 짓고 낱알장사도 하여 대부호가 되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있다.

최생은 고향에 내려가 먼저 10결이나 되는 넓은 토지를 제힘으로 경영했다. 그리고는 농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낱알값의 변동을 리용해서 장사를 하여 리를 얻으려 했다. 이러한 그의 타산은 적중하였다.

허공이나 최생의 성격형상에서 공통적인것은 몰락량반의 처지에 있는 그들이 지난날의 생활방식과는 달리 천하게 여기던 장사를 대담하게 하여 번 돈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자력으로 상업적농업을 경영하여 대부호로 되는 점이다. 이러한 량반선비들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량반이건 천민이건 누구나 할것없이 로동에 참가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할데 대한 사상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 시기에 와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경제적인 농업방식

이 점차 허물어지고 상품생산과 교환이 확대되는 상업적농업으로 발전하여가던 경제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민감하게 반영하였던것이다.

이 시기 한문단편소설들에서는 또한 이전에는 천한 일로 되어있던 상업활동에 뛰어들어 부를 축적하는 량반선비들의 형상도 주목된다.

《청구야담》(1864)에 실려있는 《보배로운 기물임을 알고 허생이 동화로를 취하다》의 주인공 허생의 형상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 작품은 《계서야담》에도 같은 내용으로 올라있다.

이미 1780년대초에 창작된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는 놀고먹는 량반을 없애고 누구나 다 로동에 참가할데 대한 실학자들의 경제실용사상을 허폐허식적인 글공부를 그만두고 상업활동에 뛰어들어 거대한 재부를 축적하는 량반선비인 주인공 허생의 형상속에 구현하였다.

《보배로운 기물임을 알고 허생이 동화로를 취하다》의 이야기줄거리는 《허생전》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허생전》에서는 주인공이 변부자에게서 돈 만냥을 꾸어 장사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개성의 박부자에게서 돈 수천냥을 받아다 기생집에 처넣고 돈이 떨어지자 기생 초운에게서 검은 동화로를 달래가지고는 회령으로 가서 청나라 장사군에게 10만냥을 받고 파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허생전》에 있는 무인도이야기가 《보배로운 기물임을 알고 허생이 동화로를 취하다》에는 없다. 《보배로운 기물임을 알고 허생이 동화로를 취하다》의 마지막부분에서 허생은 임금으로부터 령을 받고 인재를 찾아다니다가 온 리완대장과 담화한다. 허생은 자기가 내놓은 세가지 안에 대하여 리완이 모두 못하겠다고 하자 그의 허장성세를 간파하게 되며 그를 호되게 꾸짖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만다. 이 소설은 박지원의 《허생전》을 소재로 하여 재창조된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허생전》과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기물임을 알고 허생이 동화로를 취하다》에서도 역시 아무 일도 안하고 글만 읽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장사행위에 뛰어드는 선비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사농공상》의 엄격한 신분적질서하에서 상인을 비천하게 여기고 상업을 천시하던 종전의 관념에 비추어볼 때 장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대담하게 뛰어들어 많은 재부를 축적하는 량반출신주인공들의 형상은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들에 나타난 새로운 성격형상의 하나이다.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들의 인물성격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대부호가 되어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신흥세력인 서민출신인물들의 형상이다.

단편소설 《남경가서 정씨상인이 장사하다》, 《부자늙은이가 과거보러 가는 선비를 돕다》, 《김공생과 그의 아들들》, 《이팔의 아가씨와 인연을 맺다》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러하다.

단편소설 《남경가서 정씨상인이 장사하다》에서 주인공 정씨의 형상은 상업의 해외진출과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담당자로 새롭게 등장한 대상인의 형상이다.

이 소설은 《청구야담》, 신독복의 《학산한언》, 《동야회집》에 모두 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어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상인 정씨는 연경(베이징)래왕무역을 하던중 손실을 크게 입어 관서감영에 7만냥의 빚을 지게 되며 집까지 팔았으나 2만냥을 채 물지 못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다. 그는 옥중에서 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 감사를 만나서는 돈 2만냥만 주면 3년후에는 4만냥을 갚겠다고 한다. 그 돈을 가지고 그는 당시 의주를 중심으로 판서지방의 여러 고을들에 집중적으로 발달해있던 은채취거래를 하여 6~7만냥을 벌며 인삼 등을 구입하여 말을 사서 연경장사를 떠난다. 연경장사에서 성공한 후 그는 연경사람들과 거래하던 중 양주, 강서지방에 내려가 약초거래를 하여 몇달사이에 수만냥을 벌며 감영에 진 빚 4만냥을 전부 갚고 감사에게는 다섯바리의 진귀한 물건을 선물한다.

소설에서 주인공 정씨는 감영의 빚을 갚기 위해 해외에까지 진출하는 모험을 하여 큰 리득을 얻는 진취적이고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소설의 마감에 감사가 은혜를 갚은 정씨에게 《자네야말로 큰 영웅일세.》라고 하면서 벼슬길에 천거하여 정씨상인이 진장벼슬까지 하게 된 사실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룰리도덕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봉건사회에서 신분적으로 천한 지위에 있던 상인들이 이때에 와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상업활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던 당시의 현실은 정씨와 같은 서민출신상인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게 하였던것이다.

《동야휘집》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부자늙은이가 과거보러 가는 선비를 돕다》역시 자기의 근면한 노력으로 만석군이 된 서민출신대부호의 새로운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소설은 경상도 순흥의 황부자가 젊은 서생에게 자기 부부가 어떻게 만석군이 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순흥만석군 황부자의 이웃집 사위인 최씨는 문벌이 좋고 글도 잘하여 과거보러 떠나려 했으나 돈이 없어 장인에게 황부자를 찾아가서 로자를 번통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장인은 《황부자는 천하에 없는 구두쇠이며 매번 제사지낼 때에는 쌀 세되박, 물고기 세마리를 놓고 지내는 위인인데 돈 한푼을 어떻게 내어 곤난을 도우려 하겠는가.》고 하면서 거절한다.

할수없이 사위는 직접 황부자를 찾아가며 황부자의 집에서는 최씨를 반갑게 맞이한다.

잠시후 사냥갔던 황부자가 돌아와 그의 사연을 듣고는 장인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가 장가든 후 안해와 함께 고생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황부자내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밭을 일구어 강냉이를 심고 가꾸어 수십섬을 수확한 다음 기어이 만섬을 채운 후에 재물을 쓰기로 작정하고 10년동안 근검절약하면서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었던것이다.

황부자는 최씨가 반드시 귀하게 될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돈 50냥과 타고갈 말 1필을 내여주고 집을 떠난 후에 최씨의 가정에서 량식이 떨어질것까지 생각하여 벼 30섬을 대주어 그의 과거급제를 도와준다.

황부자의 이러한 성격에는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시기 실학자들이 주장하던 신분평등에 관한 사상도 체현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황부자의 성격형상에서 보다 새로운것은 당시 자기의 근면한 노력으로 많은 재부를 축적한 신흥세력인 서민출신의 부자라는 점이다. 황부자는 안해와 함께 이악스럽게 강냉이농사를 지어 9천섬을 소유한 대부자로 되며 이렇게 되자 이웃에 사는 량반들도 그에게 와서 돈을 꾸어가며 굶신거리는것이다.

《청구야담》에 올라있는 단편소설 《김공생과 그의 아들들》의 주인공 김공생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의 주인공 김공생은 아전살이를 그만두고 장돌뱅이로 린근 장터를 돌아다니는 젊은 풍류남아였다. 녀색을 좋아한 그에게 20년후에는 80여명의 자식들이 생겨났다. 련이은 흥년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그는 70명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김제와 만경 두 고을사이의 들녘으로 이사한다.

그곳에서 그는 긴 행랑 100여간을 짓고 칸칸마다 칸막이를 하여 70여명의 아들들을 들이고는 각기 장기를 살려 가족단위로 농사를 짓거나 자리짜기, 신발삼기, 질그릇쟁이, 대장쟁이 등 서로 다른 생업을 일삼게 하였다. 그러다가 그곳에 어영청의 둔전(국가소유지를 군대가 리용하여 훈련과 전투여가에 경작하고 그 소출을 군수에 충당하는 토지)이 있다는것을 알고 아들들과 부지런히 개간하고 메밀을 파종하여 여름에 6~7백섬을, 다음해는 보리, 콩, 팥 등을 심어서 수천섬을 수확하며 그 다음해는 작답하여 벼를 심어가지고 전해의 곱절을 수확한다.

3년만에 가산이 점차 유족해진 그는 어영청에 가서 대장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종신마름이 된다. 70명의 아들들이 계속 자식을 낳아 인구가 불어나서 10년후에 수백호의 큰마을을 이루고 번창하게 된다.

소설에서 주인공 김공생의 형상은 당시 봉건국가가 전쟁과 기근으로 토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개별적사람들이 둔전을 경작하여 부를 축적하던 사회적현상을 배경으로 창조된 인물형상으로서 그 성격에서 역시 근면성과 경제실용사상이 강조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청구야담》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이팔의 아가씨와 인연을 맺다》에서는 역관출신의 신흥부자로서 자기의 재력을 등대고 량반가문의 아들을 빼앗다싶이 하여 자기의 사위로 삼는 서민출신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김령은 장가들어 조상묘에 성묘하러 가는 채생을 부하 5명을 보내여 잡아다가 청상과부가 된 자기의 외동딸을 처녀로 둔갑시켜 강제로 결혼시킨다.

몰락량반인 채생의 아버지 채로인은 살림이 구차하여 끼니를 건느는 때가 많았으나 그속에서도 량반의 지체를 지키려고 애쓴다. 채로인은 아들의 주머니에서 첫날밤에 받은 패물을 발견하고 그를 몽둥이로 엄하게 다스린다.

그러나 김령은 채로인의 가정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마다 쌀과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기도 하며 덩실한 새집을 지어놓고 채로인내외가 함께 살도록 한다.

채로인은 처음에는 완고하게 버티다가 나중에는 안해의 말에 못이기는척 하며 새집에서 살게 된다. 그리하여 채생도 김령의 딸과 살게 되며 후에는 과거에 급제한다.

이 소설에서 량반인 채로인이 서민출신인 김령에게서 무례한 행위를 당하고도 한마디의 항변도 못하는것은 량반의 신분적지위가 여지없이 허물어져가고있던 봉건적신분관계의 와해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같은 시기에 창작된 중편소설 《채봉감별곡》은 봉건적틀리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을 지향하는 청춘남녀들의 새로운 사랑의 틀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근대적경향을 보여주었지만 벼슬이 탐나서 외동딸 채봉을 허판서의 첩으로 주기로 약속하는 김진사의 형상이나 채봉과 장필성의 결혼을 결속지어주는 감사의 형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직 봉건적신분제도의 낡은 관념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단편소설 《이팔의 아가씨와 인연을 맺다》에서는 량반들의 도덕적 및 신분적《권

위》에 파열구가 생기고 그에 대한 불신의 기운이 고조되던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량반인 채로인과의 관계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서민출신부자 김령의 새로운 성격형상을 통하여 량반계급의 특권적지위가 허물어져가고 근대화의 기운이 높아가던 봉건말기 사회현실의 본질적측면을 예술적으로 보여주었던것이다.

서민들이 량반의 전통적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요구를 거침없이 실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상은 신분의 귀천으로 인격을 재단 낚은 관념이 급격히 사라져가고있던 새로운 시대상과 그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인간성격에 대한 단편소설작가들의 깊이있는 예술적탐구의 결실이였다.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의 성격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자본주의적관계의 영향밑에 생겨난 금전욕을 추구하는 각이한 인간들의 성격형상이다.

이 시기 한문단편소설에서는 당시 발생발전하는 자본주의적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의 지위가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과 재물에 의해 결정되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날로 증대되어가던 물질적부, 금전에 대한 욕구를 뚜렷하게 보여주고있다.

도서 《조선고전문학사》(수정판)에서는 조선봉건왕조말기의 소설문학을 취급한 부분의 《근대적요소의 강화와 〈채봉감별곡〉》이라는 소제목에서 조선봉건말기 소설창작에서 보게 되는 근대적요소와 그 경향을 봉건적인것에 대한 비판과 반향이 강화되고 자유, 평등, 민주의식의 지향이 나타나기 시작한것, 자본주의적관계의 장성발전에 따라 시정인들의 사상감정, 인정세태 등이 보다 전면에 반영되기 시작한것, 향락적이고 령기적인 기분과 취미가 짙어진것, 인물형상창조가 상품화폐경제관계와 결부되면서 인물들의 운명이 많은 경우 돈과의 련관속에서 전개된것 등 여섯가지로 나누어 분석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학계에서도 우리 나라 봉건말기 소설의 성격형상에서 나타난 근대적요소를 인간의 가치와 호상관계가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에 의하여 결정되기 시작하던 시대적변화과정과의 결부속에 분석하고있다.

이 시기 한문단편소설들에는 돈을 꺾주고 부를 축적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의 새로운 형상이 창조되였다.

이미 박지원의 단편소설 《광문전》에는 신용에 의한 고리대금업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다.

《그 당시 빚놓이하는 사람들이 전당을 잡고 빚을 주는데는 머리꽃이, 패물, 옷가지, 그릇불이, 가옥, 전답, 남녀종의 문서 등 반드시 본값을 따져서 그 액수를 정하나 광문이가 보를 선다면 전당도 묻지 않고 단 한마디말에 천냥돈을 내놓았다.》

여기서 빚놓이군은 각종 물건들을 전당잡고 밀천을 빌려준다고 했다.

그러나 원래 거지아이였으나 의리가 있는것으로 하여 부자집의 차인으로 소개된 주인공 광문은 심부름을 잘하여 주인의 신망을 얻은 덕에 천냥의 돈을 아무런 조건부도 없이 대부받았다는것이다.

이 시기 단편소설들에서는 아직까지 빚놓이군이 아무런 조건부도 없이 신용대부를 해주는것으로 되어있다. 변부자가 허생의 판상을 보고 만냥을 꺾주는것이라든가, 황부자가 최생이 반드시 귀하게 될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물건들과 함께 돈 50냥을 꺾주는것, 정씨상인에게 감사가 2만냥을 대부해주는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와 같이 소설들에서 보여주는 전당업과 고리대금업 그리고 신용에 의한 상업적인 거

래는 18~19세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청구야담》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생금을 얻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집에서 살다》에서 주인공의 형상은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창조된 또 하나의 특이한 성격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한 송경(개성)상인이 양자로 데려온 아들에게 5천냥을 주어 평양으로 보내 장사를 시켰는데 그 아들이 기생에게 빠져서 돈을 다 없애버리자 부자로서의 인연을 끊어버릴 것을 선언한다. 후날 그 아들이 생금덩이를 얻어다 상인에게 갖다바치자 그들은 부자의 의를 다시 잇고 한집에 모여살았다.

이 작품에서 특색있는것은 종래의 봉건적인 료리도덕관계에서 벗어나 부자간의 정의마저도 금전을 매개로 하여 잇게 되는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들의 성격적면모가 선명히 나타나게 그린것이다.

지난 시기의 작품같으면 한번 부자관계를 끊는다고 선포한 다음에는 봉건적인 인습에 얽매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었을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던 당시 사회관계의 변천은 돈으로 하여 끊어졌던 부자관계가 금덩어리에 의하여 일시에 다시 이어지게 하였던것이다.

이 시기에는 신용거래수단으로서 신용화폐의 리용과 그를 둘러싸고 맺어지는 변화된 인간관계와 인물들의 성격을 보여준 작품도 창작되었다.

《계서야담》에 올라있는 단편소설 《린색하고 잔인한 윤무인》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개성상인과 돈거래를 하고있던 주인공은 친구인 윤씨에게 개성상인이 발행한 80냥짜리 어음을 빌려주었는데 윤씨는 800냥으로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들쭉나서 구속된다. 주인공은 친구를 생각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또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상환해준다. 후날 그가 단천부사가 된 윤씨를 찾아갔을 때 윤씨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박대한다. 고작해서 병든 말 한필과 50냥을 로자로 쓰라고 주는데 분개하여 주인공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자 윤씨는 무고한 죄를 덮어씌워 죽일 계책을 꾸미어 끝내 그를 죽이고야만다.

이 소설에서 주목되는것은 당시에 새로운 신용화폐로 출현한 어음의 위조를 사건의 발단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있는 점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윤씨의 형상은 바로 상품화폐관계발전의 산물로서 당시 상인들이 환, 어음거래를 맺고 매우 큰 규모에서 상업활동을 벌릴 정도로 화폐류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전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가 발생하고 전통적인 신의나 도덕이 무시되면서 인심이 각박하게 변해가는 시대상을 체현한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윤씨는 지체높은 무관이지만 성질이 매우 포악하고 권모술수에 능하며 돈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작품은 윤씨의 형상을 통하여 상품화폐관계가 낳은 패덕한, 은혜도 의리도 몰라보는 기형적인간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사기협잡행위를 비판하고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소설들은 금전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가 발생하고 금전만능의 새로운 가치관이 지배하는데 따라 변화된 인간성격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인간성격창조에서 나타난 근대적요소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의 인물성격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자기의 존엄과 평

등권, 생존권을 위해 과감하고 결단성있게 행동하는 각성된 여성들의 성격형상이다.

이 시기 한문단편소설에서는 오래동안 봉건적압박과 낡은 인륜도덕의 그늘밑에서 온갖 구속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여성들이 점차 자기들의 인격과 존엄, 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가정의 행복과 생계를 위해 적극적이며 과감한 활동을 벌리는 새로운 형상도 창조되었다.

그가운데서 이채를 띠는것은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유린하려는 봉건적압제자들을 반대하여 항거해나서는 여성들의 형상이다.

《청구야담》에 있는 단편소설 《횡포를 막아낸 규중렬녀》의 주인공 길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길녀는 지방관리의 서녀로서 일찍 고아가 되어 어려서부터 길쌈과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악한 여성이다. 길쌈숨씨가 뛰어나 량반 신명희의 눈에 들어 그의 소실로 되었으나 데리고가겠다는 약속을 남긴 남편이 떠나가고 3년동안 소식이 끊어진다.

이러한 그를 그의 삼촌이 운산고을원에게 넘기려 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혼인을 한 처지라 완강히 거절한다.

그는 자기를 팔아 리득을 보려는 삼촌의 처사에 분격하여 대들기도 하고 강압적인 고을원앞에 칼을 뽑아들고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길녀가 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며 량반의 소실을 겁탈하려 함은 개, 돼지만도 못한짓이요 천지에 용납못함이라고 그 죄행을 단죄하면서 《나는 어차피 너의 손아귀에 죽는 몸, 내가 먼저 네놈을 죽이고 죽으련다.》고 호되게 꾸짖는 말은 죽음을 각오한 녀인의 절규이다.

소설에서 길녀는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권력의 횡포에 완강하게 항거함으로써 관료배가 무릎을 꿇게 하고 항복을 받아내는것과 같이 개성이 뚜렷한 인물로 형상되었다. 길녀의 형상은 선행시기 소설들에서처럼 규방속에 갇혀 정절이나 지키고 관료배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것과 같은 소극적인 항거가 아니라 과감하고 대담한 용단으로 통치배들을 복수하는데까지 이르는 여성반항아의 형상이다.

자신을 더럽힐수 없다는 여성의 인간적인 존엄, 자존의식이 담겨져있는 이러한 여성형상은 매우 주목할만 한것으로서 당시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각성된 우리 여성들의 지향세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형상이 아닐수 없다.

이 시기 한문단편소설들에서는 봉건의 문을 박차고나가 상업활동에서 큰 몫을 하는 여성들의 성격형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차산필담》에 올라있는 단편소설 《은혜를 입어 재물을 불구다》는 자기의 힘으로 생활을 개척해나가며 일처리를 능숙하게 하는 능동적이며 강의한 여성의 성격을 창조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소설은 흥년에 굶주리고 헐벗은 한 녀인이 광주 송화부근 거여객점에서 때마침 수천 께미의 재산을 탕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경주 김선달을 만나 그에게서 받은 두 께미의 돈을 밀친삼아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모은 뒤 한성 남대문밖에 이사하여 김선달을 만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있다.

녀인은 선달 김기연이 준 두 께미의 돈으로 객점을 한방 세내여 담배, 잡화, 어물, 과일, 술 등 돈을 벌수 있는 여러가지 장사를 하여 돈 만량을 벌게 된다. 녀인에게 돈이 많다는것을 알고 양주와 광주의 술꾼들이 찾아와 청혼하자 녀인은 《... 내 어찌 은인을 두고 딴 사람에게 가겠습니까.》라고 거절한다.

녀인은 그후 거지나 다름없이 된 김선달을 찾아 그의 온 가족을 구제하고 첩으로 들어가 김선달이 벼슬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형상은 우리 여성들이 지닌 아름다운 마음씨와 도덕의리에 대하여 보여주는 동시에 상업이 한창 번성하던 당시의 환경에서 여성들이 남자들 못지 않게 장사물계가 밝았고 상업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데 대하여서도 잘 보여준다.

《동야회집》에 올라있는 단편소설 《삼밭에서 산삼을 캐여 기이하게 재산을 이루다》의 여주인공의 형상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에서는 어느 재상집의 종의 남편이 된 오석량이 처의 도움으로 돈쓰는 법을 알고 장사길에 나섰다가 뜻밖의 횡재를 하여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는 무관벼슬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천한 일로 생각하던 상업이 하나의 사회적인 풍조로 되고 장사치들이 재부를 축적하던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업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있다.

소설에서 재상집의 하녀는 어리숙한 량산사람으로서 한성에 올라와 짚신장사를 하면서도 단 한켠레도 팔지 못하는 오석량을 며칠째 눈여겨보고 그와 인연을 맺고 살게 된다.

오석량은 안해가 시키는대로 돈을 가지고 성안의 빌어먹는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활쏘기터에 가서 활쏘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들과 사귀며 시골의 가난한 선비에게 쌀과 땀감을 마련해주고 붓, 벼루를 사주기도 한다. 이리하여 모두가 오석량을 칭찬하며 구면친구처럼 대해준다.

안해의 도움으로 학식도 넓히고 활쏘기터에 다니면서 활쏘는 방법도 익힌 그는 무과 시험에 급제한다.

녀인은 오석량이 받은 흥패를 감추고 《지금 대추와 밤이 흉년들어 값이 비싸니 그것을 사들이면 리득이 있으리다.》라고 하며 곱절로 값을 치르고 대추를 모두 사들이었다가 대추값이 뛰어오른 다음 다시 팔게 한다. 본전의 세 공급이나 되는 리득을 보자 녀인은 남편이 돈을 뿌려 흉년으로 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는 본전만은 남겨놓는다.

그리고는 목화이고 난알이고 모두가 흉년인데 해서(황해도)만이 조금 농사가 잘되었다고 하니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리득을 볼수 있다고 권고한다. 안해의 말을 듣고 오석량은 해서지방에 가서 그전처럼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본전만은 남겨놓는다.

오석량의 의협심에 대한 소문이 원근에 자자해지자 녀인은 자못 기뻐하면서 남편에게 본전을 보태주어 낡은 옷을 사가지고 함경도로 가서 벼와 산삼, 털가죽과 바꿔오게 하나 이번에는 그만 실패하고만다. 그러던중 함경도 깊은 산속에서 사는 로인내외의 도움으로 산삼을 가득 캐여 팔아 수천만냥을 벌게 된다.

단편소설 《은혜를 입어 재물을 불구다》와 《삼밭에서 산삼을 캐여 기이하게 재산을 이루다》에서 주목되는것은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장사물계에 더 밝고 총명하며 문제판단과 처리에서도 월등하고 그들을 계몽시키는 선도적역할을 하는것으로 형성된것이다.

여성의 이러한 형상은 단편소설 《소금》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앞부분에서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는 녀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다음부분에서 변천되어가는 당대의 현실속에서 기울어져가는 가문의 형세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여성의 슬기를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소설의 여주인공인 장풍현의 딸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나이 30살이 되어도 장가를 못

들고 동생과 함께 매일 양식을 빌려 다니는 몰락량반의 아들인 김씨가 청혼하였을 때 《너희 집에 가면 우리 딸이 굶어죽는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아버지에게 《빈부와 사생은 저마다 정해진 복에 달렸는데 그의 청혼이 해피할것이 없다.》고 주장하여 아버지의 승낙을 얻으며 신랑의 뒤를 따라가서 오두막에서 살림을 편다.

너주인공은 시집에 올 때 가지고온 가는 무명 두필을 팔아 40냥 받고 10냥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고 30냥으로 남편에게 소금장사를 하라고 한다. 너인은 남편에게 염장에 가서 소금군과 약정하되 돈을 염장에 들여놓고 소금을 받아서 장사하여 번 돈을 그시그시 들여놓고 다시 소금을 받아 장사하기를 3년동안 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 3년만에 본전만 찾겠다고 하면 소금군은 틀림없이 응할거라고 하면서 《그런 다음 소금집을 지고 10여리안을 두루 돌아다니되 값은 당장 받지 말고 외상으로 남겨두어 인정을 맺어 단골을 삼으면 반드시 리득이 많으리다.》라고 일러준다.

당장 리득을 바라지 않고 물주는 물론 구매자들에게서까지 신용을 얻어 장사를 크게 하는 법을 알려준 너인은 그후 다시 남편에게 3천냥을 주며 장사리숙을 남편에게 알려주어 장사에서 성공하게 하고 자기는 부지런히 길쌈을 하여 천냥의 돈을 번다. 돈이 만냥에 이르자 이들은 목은 밭을 사고 그 자리에 큰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산다.

남편에게 소금장사의 묘리를 터득시키는 너성의 형상은 상업류통이 활발해지던 당시의 현실에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사리 밝고 기지와 판단력이 있으며 상업류통에서도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몰락한 량반들의 무능성을 폭로하고있다.

남존녀비의 구속으로 규방에 갇혀있던 여성들이 자기의 능동적인 행동과 지혜로 상업활동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형상은 이전시기 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성격형상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형상에는 인간개성에 눈뜨기 시작한 여성들의 사회적진출에 대한 시대적요구가 구현되어있으며 문제처리에서는 남녀가 다 평등하다는 근대적인 남녀평등사상과 여성인권옹호사상이 반영되어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은 변화된 시대현실을 반영하여 인물성격창조에서 새로운 시대적특성을 나타내었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에서 봉건적인것에서 벗어나려는 당시 인민들의 근대적지향과 새로운 사회풍조를 반영한 인물들의 새로운 성격형상을 크게 몰락량반의 처지에서 벗어나 상업과 농업분야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부호가 되는 량반들의 형상, 자기의 노력으로 대부호가 되어 막강한 재력을 배경으로 량반행세를 하는 서민들의 형상, 자본주의적관계의 영향하에 생겨난 금전욕을 추구하는 각이한 인간들의 성격형상, 여성의 존엄과 평등권, 생존권을 위해 과감하고 결단성있게 행동하는 각성된 여성들의 성격형상 등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이 시기 한문단편소설은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적단계의 소설로서 봉건을 반대하는 인간의 형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창조하지 못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시대력사적인 제한성이 있지만 이 시기 한문단편소설의 성격형상에서 볼수 있

는 근대적요소는 그것이 비록 초보적인것이기기는 하나 이후시기 근대소설의 발생에서 짝으로 되었으며 긍정적인 바탕으로 되었다.

봉건말기 한문단편소설의 인물형상창조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근대적요소는 조선근대소설의 발생이 외국문학의 《이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나라 고전소설자체발전의 합법칙적결과의 산물이며 자체의 독자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근대소설제로 이행하게 되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민족고전문학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번역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근대적지향, 성격형상, 자본주의적관계, 서민출신, 상인, 금전